

“한국 인문학 카이스트로 만들겠다”

한국고전번역원 초대 원장 박석무



“체계적인 한국 고전의 번역과 학술적 정리를 통해 한국 고전번역원을 한국 인문학의 메카, 인문학의 카이스트로 만들겠습니다.”

15일 한국고전번역원의 초대 원장으로 임명된 박석무 전 단국대 이사장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탄생이 만시지탄(晚時之歎)인 측면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가기관으로 재탄생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다짐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지난 1965년부터 한국의 고전을 번역해온 민간기관인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이하 민족)를 모태로 최근 출범한 국가 기관이다. 지난해부터 한국고전번역원 설립 근거를 담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시작돼 올 7월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4일 정식 개원했다. 앞으로 고전 정리, 고전 번역, 고전 번역자 양성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늦었지만 국가기관 재탄생 다행”

박 원장은 민족에서 10여년 동안 이사와 기획편집위원으로 활동한 공이 인정돼 이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초대 책임자로 임명됐다.

3년 임기의 첫날을 맞은 박 원장은 “북한도 40여년 전부터 국가가 고전 번역사업을 관리, 많은 성과를 내놓았지만 우리는 민족 등 민간단체나 개인 연구자들에 의해 추진돼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제 정부 출연기관이 탄생한 만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번역사업을 수행하고 한국학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번역원 안에 ‘민족문화자료센터’를 구축, 고전 자료에 대한 일반인·학계·산업계 등의 다양한 요구와 민원 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속에 자리 잡는 고전 번역의 중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전번역원 번역사업의 향후 계획과 관련, 박 원장은 “기존 민족의 번역사업은 1년 단위의 정부보조금 지급에 맞춰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고 원전에 대한 외부 평가는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전체 고전문헌 번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한 뒤 원전에 대해 교감, 표점 등 정본화 작업을 우선할 것이며 번역서에 대한 평가사업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이어 “민족의 번역서는 그동안 일부 학자들로부터는 ‘학술적이지 못하다’는 평을 받는 반면, 일반 대중들로부터는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 등 번역서를 읽는 고객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다”면서 “고전번역원은 앞으로 번역서의 내용과 고객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 요구에 맞게 번역을 차별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속에 자리 잡는 기관 만들 것”

그는 구체적으로 “번역서를 전문가용과 일반대중용으로 나누어 만들어 학계는 물론 대중과의 소통성을 강화하겠다”며 “전문가용은 상세한 주석을 붙이고 학계의 요구 및 연구성과를 반영하는 등 학술성을 강화하고 대중용은 상세한 주석보다는 내용의 전달에 중점을 두고 전제보다는 읽을 만한 부분만을 뽑아 번역, 대중성을 확보하겠다. 나아가 한문고전문헌을 창조적으로 가공 보급함으로써 전통을 현대화하고 고전문학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원장은 “중국과 일본 등 한자문화권 국가와의 연구 교류 및 사업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또 한글로 번역된 우리 고전을 영어 등 외국어로 번역해 보급, 우리 문화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中·日 등 한자문화권 국가와 협력”

50여 년 동안 다산학 연구에 매진해오다 지난 2004년부터는 사단법인 다산연구소를 만들어 이사장을 맡고 있기도 한 박 원장은 “부설 국역연수원을 광주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광주 지역 학자들과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원장은 13, 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9대), 5·18 기념문화재단 이사장(7대) 등을 역임하다가 지난 2005년 3월 단국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한국고전번역원장 취임을 위해 14일 단국대 재단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워커뉴스 jwi@kwangju.co.kr

종교칼럼



김유수

“아침 이슬방을 속에는 태양이 들어 있다.”

누군가의 말에 나의 마음은 어린 동심으로 돌아간다. 어린 시절 여름 방학 때면 어김없이 소울이는 내 차 지었다. 꿀 맛 같은 단잠에 빠져 있는 새벽이면 부모님은 어김없이 깨우셨다. 채 떠지지도 않는 눈을 비비며 외양간에 매여 있는 소를 몰고 들로 나갔다.

새벽 어둠이 아직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밤새 내린 이슬에 바지는 금방 젖었다. 얼마 있으면 동녘 하늘에 불개 물들며 태양이 떠오른다. 이 장면

을 구의 한 시인은 신방에서 나온 새신랑 같다고 노래한 바 있다. 어린 시절 맞이한 태양 빛은 아침 배고픔을 잊을

아침 이슬속에 태양이

만큼 황홀했다.

그 순간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과 거미줄에 걸린 구슬 같은 이슬방울은 시샘이라도 하는 듯 오색찬란한 빛을 냈다.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그 아름다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하루 동안 쌓이고 쌓인 먼지가 밤새 내린 이슬에 씻기고 씻어내어 아침이면 가장 맑고 깨끗한 이슬방울이 된다. 이슬방울은 태양보다 더 아름다운 빛을 낸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 이슬방울과 같다. 때 묻은 마음은 기도와 명상, 신의 말씀을 통한 씻어낸다. 비로소 아침 이슬 같이 깨끗해진다. 그 깨끗한 마음속에 신이 주신 은총과 고운 마음은 진주빛 같이 빛날 것이다. 여름의 식물이 이슬방울에 하루를 사는 것처럼 나의 삶도 아침에 맑힌 이슬방울 속에 태어난 빛으로 산다.

현대 종교인들의 문제는 자신의 마음을 씻어내는 기도와 경건한 묵상의 시간이 빙곤한 데 있다. 날을 새고 때론 밤을 새워 돈 헤아리는 데는 열심이지만 정작 소중한 마음의 수양을 위해 기도와 명상, 묵상의 시간은 없다. 켜켜이 쌓인 먼지를 씻어내려 할 때는 이미 삶이 되어 씻어낼 수 없게 된다.

씻어내야 할 때를 내 삶이 양 당연시 여기며 살아간다. 언젠가는 피가 나도록 그 때를 씻어내야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마음의 빛을 잃어 버린 마음으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간다. 어둠과 빛은 나의 인생의 운명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다.

아침 이슬방울 속에 태양 빛은 자연의 섭리라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순결한 이슬방울 속에 신의 빛이 어리는 것은 바로 나의 선택이다. 아침 이슬방울 속에 태양이 들어 있다는 말을 잊지 말자.

〈목사·광주 월광교회 담임〉

한국 가톨릭 해외선교사 중국이 82명으로 최다

올 81개국에 674명 파견 작년보다 11% 늘어

한국 가톨릭 해외선교사 수와 파견 국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톨릭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대표 오기백 신부)가 최근 발표한 ‘2007 한국가톨릭 해외선교 현황’에 따르면 이번 달 현재 한국에서 파견된 해외선교사는 674명으로 지난해 605명에 비해 11.4%인 69명 늘었다. 파견국가도 75개국에서 81개국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가톨릭 해외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동 중인 대륙으로는 아시아로 전체의 40.3%인 272명이 파견됐다. 이어 아메리카(187명·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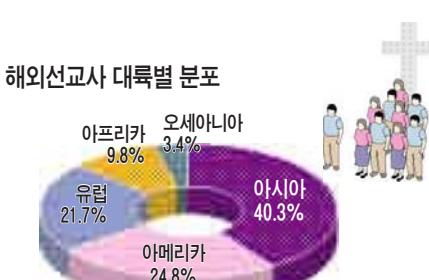
8%), 유럽(146명·21.7%), 아프리카(66명·9.8%), 오세아니아(23명·3.4%) 순이었다.〈표〉

나리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54명 ▲이탈리아 48명 ▲필리핀 40명 ▲일본 36명 ▲멕시코 2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선교에 참여한 단체 역시 ▲2005년 68개 ▲2006년 78개 ▲2007년 88개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활동 영역별로는 선교지 본당과 공소를 중심으로 한 사목 및 선교에 종사하는 선교사가 188명(27.9%)으로 가장 많았다.

■ 해외선교사 대륙별 분포



수녀회(14명), 오세아니아에는 한국외방선교회(9명)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왔다.

활동 영역별로는 선교지 본당과 공소를 중심으로 한 사목 및 선교에 종사하는 선교사가 188명(27.9%)으로 가장 많았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성모승천 수도회 박호수사

24일 사제 서품식

성모승천 수도회(원장 도세민 신부)

소속 박호(세례명 요셉·40·사진) 수사가 오는 24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쌍촌동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성당에서 사제서품식을 갖는다. 주례는 윤공희(세례명 빅토리노) 대주교, 박 수사의 첫 미사 집전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광주시 쌍촌동 성모승천 수도회 본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문의 062-374-1880.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불교 문헌 288종 인터넷 속으로

한국불교전서 전산화 완료

방대한 불교 문헌이 인터넷 속으로 들어왔다.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재콘텐츠연구소(소장 보광 스님·이하 연구소)가 최근 ‘한국불교전서’ 전산화 작업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했다.

연구소 측은 이번 전산화를 통해 ▲유니코드에 없는 글자 관리 시스템의 개발 ▲웹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술 확보 등 장차 불교 문헌의 전산화의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정상필기자 camus@

■ 월드컵 412번 ■ KBS TV 42번 ■ MBC 43번 ■ JTBC 42번 ■ 나주 40번 ■ 새롬 55번 ■ 드림 42번

CBS

광주 CBS TV

설날에 축복하세요
온라인 축복이 올라옵니다.
설날은 기쁨
설날은 나눔입니다.

TV김단

TV한민

TV정민

TV정민

TV김단

TV한민